

소장펀드 가입 자격 5천만→8천만원 상향

與 법개정 추진… 가입대상 100만명 증가 예상

기재부, 부자감세 논란 우려 “내년에나 논의”

판매 부진에 빠진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의 가입 자격을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대상 근로자가 100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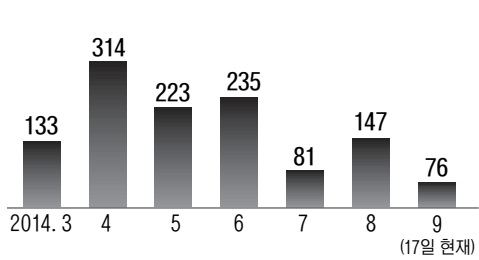
20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같이 소장펀드 가입대상을 내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나성린 의원은 “장기펀드 소득공제 가입 대상 확대로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과 장기 투자를 통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소장펀드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과 장기투자를 돕고 주식시장 발전을 촉진하고자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지난 3월 도입됐다. 연간 납입한도가 600만원이고 이 중 40%인 240만원까지 소득에서 빼주는 세제혜택을 준다.

이번 개정 추진은 소장펀드의 부진에 따른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누적 계좌는 23만6000계좌에 그쳤다.

■ 소장펀드 월별 순유입액(단위:억원)



특히 3~4월에 10만여 계좌씩 총 21만3천계좌가 개설된 뒤로는 심각한 판매 부진에 빠졌고 6월 25만4천계좌를 정점으로 7월부터는 요건 미달자의 해지 사례가 생기며 오히려 줄었다.

개정안은 소득기준 상향에 따라 가입자의 소득증가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는 총급여 상한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는다. 가입 후 소득이 늘어나 1억원을 넘어선 뒤로는 연간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구조다.

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윌돈이 있는 근로자들이 대거 가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장펀드가 부진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 소장펀드 가입 대상 연봉 8천만원으로 확대 추진

40% 연말 정산 때 소장펀드 납입액 공제를

3.6% 소장펀드 전국 평균 가입률

5000만원→8000만원 소장펀드 가입자격 연간 총 급여 5000만원에서 확대

대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반응은 온도차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가구의 자산형성에 보탬이 되고 증시로의 자금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비과세·감면제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일단 현상 유지 쪽에 무게를 실었다.

기재부 측은 소득기준을 높이면 자칫 부자감세 논란이 생길 수 있는데다 소장펀드 조항

이 내년 말에 일몰하는 만큼 내년 하반기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과세 미달자를 제외한 실제 가입대상은 연간 총급여 5000만~8000만원 구간(2012년 기준)에서 100만명 가량이 추가되면서 모두 900만명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연합뉴스

은행서 잠자는 ‘휴면 신탁’ 2400억

100만원 미만 98% 차지

주인 찾아주는데 소극적

국내 은행에서 잠자는 ‘휴면성 신탁’ 계좌가 170만건, 24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은행들은 정작 휴면성 신탁 계좌의 주인을 찾아주는 데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국내 17개 은행의 ‘휴면성 신탁’ 계좌는 총 170만1058개, 금액은 2427억원에 달했다.

‘휴면성 신탁’이란 신탁 만기일이나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넘게 거래가 없는 계좌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휴면성 신탁 계좌가 32만5000건(2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은 26만2000건에 금액은 532억원에 달했다. 기업은행은 21만2000건(229억원), 국민은행은 19만3000건(330억원)이었다.

휴면성 신탁 계좌 중에는 100만원 미만이 약 98%로 전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1억원 이상은 물론, 10억원이 넘는 계좌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7건 포함됐다.

그러나 은행들이 이런 휴면성 신탁주인을 찾아주는 데에는 소극적이었다.

2011년까지는 10개 은행만이 주인 찾아주기에 나섰을 뿐이었다.

17개 은행이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인 찾아주기 운동’에 나선 것은 2012년부터 2년여에 불과했다.

은행들은 2012년에는 계좌 수로는 6만6000여개(3.72%), 784억원(20.46%)의 주인을 찾아줬지만, 지난해에는 4만4000여개(2.57%), 421억원(12.87%)에 그쳤다.

휴면성 신탁계좌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위탁자의 무관심이나 연락 두절 탓도 있지만, 은행들이 주인 찾아주기 운동에 소요되는 관

리비용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은행들이 찾아 준 휴면성 신탁이 지난해 2.57%에 불과하다는 것은 은행들이 고객 유지에만 급급할 뿐 정작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휴면성 신탁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분기별로 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찾아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최소 10자리로 변경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설정 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강화된다.

국내 5개 공인인증기관으로 구성된 한국인증산업발전협의회는 전자금융사기 수법의 진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번호 설정규칙을 변경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비밀번호 설정 시 숫자, 영문, 특수문자 반드시 포함하도록하는 한편 고객 혼란을 줄이기 위해 특수문자 4종(“ ” “ ” “ ” “ ”)은 제외된다.

또 영문 대소문자 구분기능을 추가해 보다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토록 지원한다. 비밀번호 최소 자릿수도 기존 8자리에서 10자리로 늘어난다.

변경된 규칙은 민원 최소화화 고객 학습효과를 위해 공인인증서 발급, 재발급, 갱신 시 우선 적용하게 된다. 타기관 등록, 복사, 사용(로그인 등)에는 1년 후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인증산업발전협의회 의장인 고성학 한

국정보인증대표는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공인인증서 이용환경을 위해서 연내에 다양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경매 투자

- ▶특수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단독, 공동투자 하실 분
- ▶낙찰물건에 투자 하실 분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투자자 모심

- 1억~10억원
- 담보 제공 가능
- 경매에 관심 있는 분!

아파트형 콘도 / 별장 / 펜션 분양

주인 직매, 010-3180-8900

★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번지
광주에서 1시간 10분 거리



★ 아파트 개념

전기/수도 개별, 노래방/식당/세미나실 사용 가능
100m 온천수, 편백나무 시공
TV등 빌트인 시설 별도

★ 산속의 궁전

화개장터, 샴계사, 노고단 근접거리

★ 총 55세대 (18/28/56평) 중 2세대

28평 - 8400만원(용자 2300만원 포함)
56평 - 1억6800만원(용자 4600만원 포함)

오피스텔 “매매”

■ 29평 - 12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양동 하천 방향, 원룸형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주거용
매매가 - 7200만원

■ 53평 - 13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창가, 코너, 전망좋음, 룸 2개 사무실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적합
매매가 - 1억5천500만원

■ 77평 - 20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창가, 코너, 전망좋음, 최상층
사무실 용도로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매매가 - 2억5천500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